

## 파스칼 변증론의 교육적 함의\*

장성민\*\*

**주제분류** 프랑스철학, 교육철학

**주요어** 파스칼, 교육, 변증론, 설득, 회심

### **요약문**

이 논문의 목적은 파스칼의 변증론에서 교육적 함의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데 있다. 그의 변증론에 함축된 교육적 담론은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교육의 일차적 목적은 '교양인'을 만드는 데 있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재능을 쌓도록 하는 지식 교육이 아니라 인성 교육이다. 둘째로 교육 방법론, 곧 설득의 기술이다. 파스칼은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를 '납득 시키는 기술'과 '마음에 드는 기술'로 구별하여 논한다. 전자는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고 후자는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실제로 교육에는 후자가 더 효과적이지만 이 두 가지가 아우러져야 한다. 셋째로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회심(conversion)이다. 파스칼에 따르면 교양 교육이나 설득의 기술을 통해서만 타락한 인간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회심은 초자연적 계시 또는 사랑의 질서에서 가능하다. 여기에 오늘날의 표현으로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한다. 그럼에도 파스칼의 변증론은 다양한 교육 방법론을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파스칼의 변증론이 교육적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 이 글은 서양근대철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2014년 6월 21일, 숭실대학교)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충신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파스칼의 교육론에 관한 연구는 흔하지 않다. 파스칼이 이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글이나 이론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파스칼의 교육적 담론에 관한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파스칼이 영향을 받았다는 포르-루아얄(Port-Royal)과 관련된 교육학적 논의를, 그리고 그의 교육론과 일부 관련이 있는 수사학과 설득방법론을 다룬 논문들이 있다.<sup>1)</sup> 그러면 이 주제를 다시 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파스칼의 주된 관심사인 변증론이 교육적으로 무엇을 함의하는지 좀 더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변증론과 교육적 담론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파스칼의 변증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면 이 문제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변증론(apologétique) 또는 호교론은 한마디로 종교적 진리나 신앙을 인식론적으로 정당화해 보려는 시도, 즉 종교적 계시가 이성을 초월하지만 이성(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신적 계시의 초월성을 인정하더라도 계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파스칼의 변증론은 좀 더 실천

---

1) Antoine Arnauld et Pierre Nicole, *La logique ou l'art de penser*, édition critique par Dominique Descotes(Paris: Champion, 2011); Sainte-Beuve, *Port-Royal II*; I. Carée, *Les pédagogues de Port-Royal*(1887); Georges Snyders, *La Pédagogie en France aux 17e et 18e siècles*(1965); H. C. Barnard, *The Little Schools of Port-Royal*(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13). 안혜련, 「파스칼의 수사학」, 『수사학』 4권, 한국수사학회, 2006 3, 135-157쪽; 「파스칼의 『시골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의 대화술」, 『프랑스고전문학연구』 9권, 한국프랑스고전문학회, 2006 11, 61-78쪽. Hyung-Kil Kim, *De l'Art de Persuader dans les Pensées de Pascal*(Paris: Nizet, 1992).

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초월적 진리의 이론적 정당화보다는 ‘진정한 회심’(la conversion véritable)에 목적을 둔다. 이 점에서 파스칼의 변증론은 신적 계시를 체계화하는 신학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구이에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과 파스칼의 변증론은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sup>2)</sup> 그런데 파스칼의 변증론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이 회심이라고 할 때 문제는 그것이 전적인 신적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변증론적 시도는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변증론이 회심의 동인(動因)이 될 수 없는 조건에서 어떤 교육적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변증론에 함축된 교육적 담론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의 일차적 목적, 교육 방법론, 그리고 교육의 한계와 그 극복 등을 변증론과 관련지어 다루되, 논쟁점보다는 파스칼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 II. 변증론의 서론: 교육의 일차적 목적

파스칼의 일차적인 교육 목적은 교양인(honnête homme)을 만드는 데 있다. 교양인을 거론하는 것이 파스칼의 변증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파스칼의 변증론이 계시가 아닌 인간 이해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때 서로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그것은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제시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서 유효하다. 파스칼에 따르면 단순히 전문 지식이나 기교, 재능을 쌓는 것은 교육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교양인으로서의 보편성이 중요하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한다.

2) H. Gouhier, *Conversion et Apologétique*(Paris: Vrin, 1986), 95쪽.

“그는 수학자다, 설교자다, 웅변가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그는 교양인이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보편적 특성이 나의 마음에 든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그의 저서를 떠올리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다. 나는 우연히 또 그것을 사용해야 할 기회가 올 때까지는 어떤 재능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란다. ‘무슨 일이든 지나치지 말 것’(ne quid nimis). 한 재능이 뛰어나서 그 이름으로만 불리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를 제외하고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기억되고 싶지 않다. 그때 가서 그렇게 기억되면 된다.”<sup>3)</sup>

파스칼의 논지를 따르면 사람은 보편적인 전문성을 갖출 수 없으므로<sup>4)</sup> 그것보다는 누구나 가능한 보편적인 인간의 조건인 교양인을 추구해야 한다. 사실 보편성과 전문적 재능을 다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양자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전자를 택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sup>5)</sup> 교양인이 되는 것이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도 교양이 부족한 인간보다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유익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교양인의 개념은 파스칼에게 영향을 준 몽테뉴의 교육철학에서도 발견된다. “우리가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문법학자나 논리학자가 아니라 바로 교양인을 만드는 데 있다.”<sup>6)</sup>

그러면 파스칼의 ‘교양인’은 어떤 개념인가? 파스칼의 친구 메레가 지적하듯이 교양인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이지 않고 거짓 말을 하지 않는 ‘정직한’ 인간(homme honnête)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교양’의 개념은 모호하고 다양하여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지만 사회적

3) B. Pascal, *Pensées*, in *Oeuvres complètes*, “l’intégrale”(Paris: Seuil, 1963), 단장 647 (35). 파스칼의 글들은 이 책의 쪽수를 따르고 『광세』의 인용은 라퐼마판(Ed. Lafuma)의 단장 번호를 따르며 편이상 브뤼슈빅판(Ed. Brunschvicg) 단장 번호는 괄호 속에 넣는다. 앞으로의 인용은 단장 번호만을 표기한다.

4) 단장 195 (37).

5) 단장 195 (37).

6) Michel de Montaigne, *Essais* I, 26.

의미를 내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sup>7)</sup> 그것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연유하였으나 17세기 프랑스 사회에서 발전된 이상(理想)으로서 사회문화 현상이며,<sup>8)</sup> 특히 궁정인(宮廷人, courtisan) 또는 상류계층이 살아야 할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sup>9)</sup> 그런데 프랑스의 교양인에 관해서 처음 논의를 시작한 파레(Nicolas Faret, 1596-1646)는 그의 저서 『교양인 또는 궁정에서 환심을 사는 기술』(*L'Honeste Homme: Ou L'Art de Plaire à la Cour*)에서 '교양인'을 정의할 때 인간의 내면적인 측면보다는 궁정에서의 성공 비결과 관련된 일종의 실용주의적 성격을 강조한다. 한마디로 도덕성은 세속적 가치의 하위에 놓인다.<sup>10)</sup>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양인은 프랑스 사회의 상류층 곧 파리의 살롱에서 회자한 것으로 각자 개인에게 필요한 소양을 하나씩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시민적·도덕적·미학적 이상 등을 모두 포괄하는 보편적 인간상을 담은 개념이다.

파스칼에게 교양을 가르쳐준 슈발리에 드 메레(Antoine Gombaud, Le Chevalier de Méré, 1607-1684)는 『참된 교양에 관한 담론』(*Discours de la vraie honnêteté*)에서 “교양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행복하고 유쾌

7) Georges Van Den Abbeele, “Moralsits”, edited by Denis Hollier, *A New History of French Literature*(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332쪽.

8) François Bluche, *Dictionnaire du grand siècle*, article *Honnête homme*, Fayard, 2005, 728-729쪽; Maurice Magendie, *La politesse mondaine et les théories de l'honnêteté en France au XVII<sup>e</sup> siècle de 1600 à 1660* Tomes I-II, Genève, Slatkine, 1993.

9) 특히 파레와는 달리, 그 이후에 '교양'에 관해 글을 쓴 메레와 같은 작가들은 궁정이 아니라 궁정 밖의 '사교계인'(l'homme du monde)을 찾아냈다. Kathleen Wine, *Forgotten Virgo: Humanism and Absolutism in Honoré D'Urfés «l'Astrée»* (Paris: Ed. Droz, 2000), 139쪽. 당시 프랑스의 교양인은 궁정인과 사교계인으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김원숙, 「근대 프랑스 교양인의 기원과 유형 연구」, 『미학·예술학연구』, 17권, 2003, 188-194쪽 참조.

10) T.M. Kim, “L'honnête homme au XVIII<sup>e</sup> siècle français et sa mise en perspective littéraire—autour de Méré, Scudéry et Mme de Lafayette”, 『불어불문학연구』 제45집, 312쪽.

하게 하며 타인을 유쾌하게 하는 모든 것을 취해야 한다”<sup>11)</sup>고 말한다. 이처럼 교양은 윤리적 가치를 내포한다.<sup>12)</sup> 실제로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서는 실천적이고 공리적인 도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아의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고 인간관계의 규범, 곧 소통의 규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sup>13)</sup> 이것이 교양이 필요한 이유다. 이 점에서 메나르(Jean Mesnard)는 파스칼의 교양인을 영웅의 개념과 대립된 것으로 파악한다. 영웅이 개인의 비범함을 통해 그 가치를 드러내지만 교양인은 사회성이 있고 품격과 예의를 갖춘 인간성이 그 기준이 된다.<sup>14)</sup>

무엇보다도 파스칼의 교양은 이상 사회를 위한 도덕적 가치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통제와 중간 또는 균형의 원리다. 파스칼의 인간학에서 주로 많이 사용된 개념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 ‘중간’의 개념이다. 본래 인간은 양극단을 동시에 지닌 실존적 존재다.<sup>15)</sup> 그런데 교양이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직한 노력이다. 극단은 어떤 형태든지 도덕적 배려를 통한 올바른 인간상을 형성할 수 없고 따라서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파스칼은 “우리가 덕 가운데서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두 개의 상반된 부덕(不德)의 균형에 의해서”라고 말한다.<sup>16)</sup> 물론 이것이 양쪽의 극단적인 부덕 자체가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덕은 언제나 실존하고 있지만 그런 상반된 상황에서 균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양의 목적은 양자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

---

11) Sainte-Beuve, “Le chevalier de Méré ou de l'honnête homme au XVIIe siècle”, in *Revue des Deux Mondes* T. 21, 1848, 17쪽.

12) Louise K. Horowitz, *Love and Language: A Study of the Classical French Moralists*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77, 28쪽.

13) Edouard Morot-sir, *La Métaphysique de Pascal* (Paris: PUF, 1973), 101쪽.

14) Jean Mesnard, *Les Pensées de Pascal* (Paris: Sedes, 1976), 109-113쪽.

15) 단장 131 (434).

16) 단장 674 (359).

는 일이다. 파스칼은 “중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인간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단언한다.<sup>17)</sup> 균형을 위해서 교양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앞서 언급대로 ‘자기 통제’다. 요컨대 중간을 유지한다는 것은 보편적이 된다는 것이요, 보편성은 교양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sup>18)</sup> 이런 의미에서 교양은 데카르트적 보편 이성에서가 아니라 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위에 세워진다. 따라서 교양은 교육학적으로 볼 때 이론적이기보다는 매우 실천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교양을 이상 사회를 위한 하나의 장식이 아니라 활동력으로 간주하는 메레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점에서 파스칼 사상의 독창성은 관념 자체에 있지 않고 그 관념을 설정하는 관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처럼 파스칼이 교양 또는 교양인을 실천적 개념으로 거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그의 변증론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종교적 진리가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배치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속적 교육에서 교양 곧 보편적 덕을 추구하는 것의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인간성의 근본적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을 기대하고 추구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요컨대 이것은 인간의 문제에서 공유 영역, 즉 소통의 장을 확보하려는 파스칼의 변증론적 전략(*le stratège apologétique*)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7) 단장 518 (378). 파스칼의 ‘균형의 철학’은 현대 사회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예컨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이념과 계층 간에 나타나는 갈등의 심화 원인은 어느 한쪽의 극단적인 입장만을 고집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수가 많다는 데 있다. 당연히 이러한 현상이 지속하면 그 사회는 경직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람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기가 더욱 어렵다. 파스칼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면 이런 극단적 태도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은 균형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중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8) Edouard Morot-sir, *La Métaphysique de Pascal*(Paris: PUF, 1973), 101쪽.

### III. 변증론과 교육 방법론

앞서 언급한 대로 파스칼의 변증론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면 교육방법론, 즉 설득의 기술(*l'art de persuader*)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수사학적 접근 방식이다. 본래 교육은 가르치는자와 배우는 자와의 상호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써 대상을 어떻게 잘 설득할 수 있는가가 교육의 관건이고 그래서 교육 방법론이 제기된다. 파스칼은 「기하학 일반에 관한 고찰」(*Réflexions sur la Géométrie en Général*)의 제2부에서 「설득의 기술에 관하여」를 다룬다. 이 논고는 아르노(Arnauld)의 요청에 따라 포르-루아얄의 교육용 교재로 쓰인 『기하학 원리』(*Eléments de Géométrie*)의 서문으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파스칼은 기하학을 가르치는 것은 기하학 자체보다는 사유하고 논증하고 설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파스칼은 이 논고의 첫머리에서 “설득의 기술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제안된 것에 동의하는 태도와 믿게 하려는 것의 조건과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한다.<sup>19)</sup> 설득에는 두 가지 기술, 즉 ‘납득시키는’(*convaincre*) 것과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agréer*) 것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의 두 가지 인식 기능과도 관련이 있다. 즉 “의견이 영혼(정신)에 받아들여지는 두 가지 통로, 즉 지성과 의지다.”<sup>20)</sup> 그리고 믿게 하려는 것의 조건은 곧 사물(대상)의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띤다.<sup>21)</sup>

19) *De l'Art de Persuader*, in *Oeuvres complètes*, 355a쪽.

20) *De l'Art de Persuader*, 355b쪽.

21) 파스칼은 이 특성을 몇 가지로 나열한다. 즉, ①“공통의 원리나 인정받은 진리로부터 필연적인 결과로써 유도되는 것들,” ②“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사물들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있는 그런 특성들,” ③“인정된 진리와 마음의 욕망, 이 모두와 동시에 관계를 맺는 특성들,” ④“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과도 쾌락과도 관련이 없는 것,” ⑤“이미 알려진 진리로 잘 입증되었으되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더없이

여기서는 설득의 기술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 1. 납득시키는 기술

앞서 밝힌 대로 ‘납득시키는 기술’(l’art de convaincre)은 지성을 통하여 설득하는 방법이다. 정신의 원리에는 “몇몇 특수한 공리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은 자연적이고 만인에게 알려진 진리들”이다. 이것은 수학적 논리적 필연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데카르트의 방법론과도 흡사하다. 파스칼의 용어로 ‘기하학적 정신’은 가장 보편적인 기능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증명된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논증에 사용되는 것은 추론이다. 그런데 모든 분야 가운데 추론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기하학이다. 그래서 파스칼은 「기하학 일반에 관한 고찰」의 제1부 제목을 “기하학적 증명 곧 체계적이고 완벽한 증명의 방법에 대하여”라고 붙였다. 일반적으로 진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기하학적 방법만큼 논리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sup>22)</sup> 기하학적 방법이 교육적으로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완벽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 비교적 자연스럽게 동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파스칼이 『팡세』 단장 418(Ed. Lafuma)에서 무한(l’infini)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내기’(le pari) 이론은 확률론, 즉 논리적 추론을 적용한 설득 방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파스칼은 변증론적 전략의 하나로 신의 존재 여부를 수학의 확률론에 따라 이

사로잡은 쾌락에 반대되는 경우” 등이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이 설득의 기술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로 세 번째까지의 특성이 설득과 관련이 있다.

22) 파스칼은 기하학의 탁월성을 이렇게 표현한다. “기하학은 인간의 학문 가운데 틀림없는 증명을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것이다.” 또 “기하학을 넘어서는 것은 우리를 넘어서나.” (B. Pascal, *De l’Art de Persuader*, 349a쪽).

해득실을 따져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무신론과 유신론에 각각 가능성, 이득, 거는 것, 기대 가치 등을 설정하고 이들을 종합하여 어느 쪽에 패를 거는 것이 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따져보라고 촉구한다.

“그런데 여기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있다. 그렇다면 무한한 확률 중에서 단 하나만이 당신의 것일 경우에도 당신이 둘을 얻기 위해 하나를 거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내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때 무한한 확률 중에서 단 하나만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내기에서 세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를 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릇된 행동이 될 것이다. [...] 이렇듯 내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때 허무를 잃는 것과 동일한 확률로 무한을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보존하는 것은 이성을 포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sup>23)</sup>

이런 가정에서 만일 도박꾼이라면 유신론에 패를 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다. 이것은 당시 실리적이면서 수확을 즐기는 자유사상가들(libertins)에게 이성적인 것(le rationnel)에서 분별 있는 것(le raisonnable)으로의 이행을 촉구하는 변증론적 방식이다.<sup>24)</sup> 다시 말해 확률 게임인 내기가 이성적·논리적 판단에 따라서 패를 거는 것이라면 신존재의 문제에도 같은 판단을 따르는 것이 분별 있는 처사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매우 단순한 논리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변증론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유용한 교육적 방법론이 될 수 있다. 또한 『광세』의 분류 문서(Papiers classés) 제8편(단장 132-139)에서 다루는 ‘디베르티스망’(divertissement, 오락 또는 위락)도 지성 또는 정신을 통한 기하학적 설득의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현실 상황을 분석,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23) 『광세』(이 환 옮김), 단장 233 (796).

24) F. Chirpaz, *La Condition de l'homme*(Paris: Michalon, 2000), 112쪽.

직시하도록 하여 사람들이 참 행복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추리 과정이다.<sup>25)</sup> 이것도 ‘신이 없는 인간의 비참’을 보여주고 ‘신과 함께한 인간의 행복’을 갈망하도록 설득하는 변증론적 전략의 하나로 제시한 방법론이다.

## 2. 마음에 드는 기술

설득의 두 번째 기술은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기술’(l’art de agréer)이다. 파스칼은 “설득의 기술은 납득시키는 기술 못지않게 마음에 드는 기술”이라고 말한다.<sup>26)</sup> 이 기술은 이성보다는 ‘마음’에 의해서 지배되는 인간의 성향을 반영한 것이다. ‘즐거움’(l’agrément)은 인간의 마음과 그 마음에 드는 사물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결과이다. 파스칼에 따르면 마음에 드는 기술은 “비할 데 없이 더 어렵고 더 미묘하고 더 유익하고 더 감탄할 만한 것이다.”<sup>27)</sup> 그래서 그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에서도 “어떤 확실한 규칙들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것을 이론화·규칙화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sup>28)</sup> 그 이유는 간단하다. 마음에 든다는 것은 개별적이고 주관적 느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데

25) ①사람들은 항상 ‘소란’ 또는 ‘오락’ 속에 빠져든다. 예컨대 경기, 도박, 사냥, 흥미를 끄는 연극, 춤, 여인과의 대화, 게임 등이 있고, 때로는 심각하고 어렵고 위험한 일, 즉 상업, 외교, 전쟁 등이 있다. ②“자기 집에 즐겁게 머물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소란을 즐긴다. 소란을 멈추면 자신의 실존과 대면하게 되고, 그 결과로 불안, 권태, 비참에 빠지게 되므로 누구나 끊임없이 기분을 전환하는 소란을 구걸한다. ③행복은 “소란 속에 있지 않다.” ④실제로 당구나 공을 치는 사람들, 도박꾼, 학자들, 왕의 총애를 받는 총감, 대법관, 법원장, 심지어 왕처럼 행복의 조건을 모두 갖춘 인물들까지 설 틈 없이 소란 속에 빠진다. 그러나 이것은 행복의 허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파스칼은 소란 속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것에서 마음을 돌리는 것으로 성립되는 이 행복이 과연 무엇인가를 판단해 보라”고 촉구한다. ⑤신이 없는 인간은 비참하고 불행하다.

26) *De l’Art de Persuader*, 356a쪽.

27) *De l’Art de Persuader*, 356a쪽. (이 환 옮김, 『파스칼의 편지』, 192쪽).

28) *De l’Art de Persuader*, 356a-356b쪽.

카르트와 메르센의 음악적 미학에 관한 논의에서도 등장하는 개념이다. 음악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즐거움을 통해서 명백해진다. 따라서 아름다움에 대한 결정적 기준은 개별적인 즐거움이다.<sup>29)</sup> 그는 메르센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작품의 아름다움을 판단하기 위한 본질적 기준은 사람들이 느끼는 개별적인 즐거움”이라고 말한다.<sup>30)</sup> ‘마음에 든다는 것’은 비단 음악적 아름다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술의 영역은 물론이고 마음의 움직임을 요구하는 모든 영역에 해당한다. 파스칼에 따르면 마음에 드는 기술이 일정한 규칙을 세우기가 불가능하더라도 오히려 정신의 역할 이상으로 정신과 더불어 작용하고 있으므로 설득을 위해서는 그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마음에 드는 기술은 지성보다는 의지를 반영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설득하려면 나의 의견이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므로 의지 또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다. 여기서 의지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어떤 자연적 욕망과 같은 것”, 즉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과 같은 것이다.<sup>31)</sup> 그런데 의지는 정신보다 더 강력한 힘을 지닌다. “어느 하나를 다른 것보다 더 좋아하는 의지는 자기가 보기 싫어하는 사물의 성질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정신을 돌려세운다. 이렇듯 이성 은 의지와 보조를 맞추어 의지가 좋아하는 측면을 바라보기 위해 멈춘다. 그리고 거기서 본 것에 따라 판단한다.”<sup>32)</sup> 이처럼 의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지향한다. 따라서 정신은 의지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설득은 이 의지를 움직일 수 있어야 가능하다. 특히 이것은 앞서 언급한 설득의 조건에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사물들과 밀접하

29) Brigitte Van Wymeersch, “L'esthétique musicale de Descartes et le cartésianisme”, in *Revue Philosophique de Louvain*, Année 1996, Vol. 94, Numéro 2, 283쪽.

30) R. Descartes, 「1630년 2월 25일 편지」, AT I, 118쪽. 김선영, 「데카르트의 미학」, 『서양근대미학』(서울: 창비, 2012), 60쪽 재인용.

31) *De l'Art de Persuader*, 355b쪽.

32) 단장 539 (99).

게 결합해 있는 그런 특성들”과 “인정된 진리와 마음의 욕망, 이 모두와 동시에 관계를 맺는 특성들”과 관련될 수 있다.<sup>33)</sup> “정신은 자연적으로 믿고 의지는 자연적으로 사랑한다.”<sup>34)</sup> 그래서 자연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희열(*delectation*)이고 곧 감동이다. 이때 감동은 청중이 담론의 진실성에 동의하도록 이끄는 요인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납득시키는 기술이 기하학적 정신에 해당한다면 마음에 드는 기술은 파스칼의 용어로 섬세의 정신(*l'esprit de finesse*)에 가깝다. 널리 알려졌듯이 섬세의 정신은 기하학적 정신으로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인식 기능으로서, 기하학적 정신이 원리로부터 추론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정신이지만 섬세의 정신은 일상의 삶에서 단번에 느낌으로 판단하는 기능으로 추론이 아닌 직관 또는 마음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sup>35)</sup> 따라서 파스칼은 설득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신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sup>36)</sup>

납득시키는 기술과 마음에 드는 기술, 즉 정신과 마음, 이 두 가지 기능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느냐에 따라 설득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파스칼의 웅변술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웅변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기술이다. 첫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이 부담 없이 즐겁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상대방이 흥미를 느끼고 자애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해 성찰할 수 있게 한다.”<sup>37)</sup>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은 상대방이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육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이

33) *De l'Art de Persuader*, 355b쪽.

34) 단장 661 (81).

35) “이 원리들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본다기보다는 느끼는 것이다. 그것들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 느끼게 하는 것은 끝없는 수고가 따른다. 그것은 너무 섬세하고 워낙 많아서 그것을 느끼고, 이런 느낌에 따라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우 섬세하고 정확한 감각이 있어야 하며, 그러면서도 기하학의 경우처럼 순서에 따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단장 512 [1]).

36) *De l'Art de Persuader*, 356a쪽.

37) 단장 16 (Brunschvicg판).

를 위해서 첫째는 “상대방의 정신과 마음, 사상과 표현 사이의 관계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하는 자들의 입장에 서야 하며,” 셋째는 “가능하면 단순하고 자연스러워야 한다.”<sup>38)</sup> 이것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 특히 정신과 마음의 상응 관계를 구축하려면 앞서 언급한 대로 정신과 마음, 기하학적 정신과 섬세의 정신 중 어느 한쪽만 선택해서는 안 되고 상호보완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사상과 표현을 일치시키려면 표현의 기술을 최대한 익혀야만 한다. 물론 “말은 잘하지만 글은 잘 못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장소와 청중의 열기가 “더 많은 것을 거기서 끌어내기 때문이다.”<sup>39)</sup> 무엇보다도 응변에서 중요한 것은 즐거움과 현실성이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진실에서 취해진 것이어야 한다”라고 파스칼은 말한다.<sup>40)</sup> 사상과 표현의 일치라는 것은 진실성을 전제한다. 변증론과 교육도 이런 진실성을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나의 담론이 일방적이지 아니라 상호적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의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인 소통은 상호관계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내포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따라서 파스칼은 “각자가 지닌 지배적인 정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확실히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sup>41)</sup> 끝으로,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커다란 힘이다. 따라서 담론을 최대한 단순화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이럴 때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요컨대 파스칼의 이런 상호 관계적 교육 방법론은 그의 변증론을 전제한 것이다. 회심을 목적으로 삼는 변증론은 듣는 자들의 정신과 마음을 최대한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38) 단장 16 (Brunschvicg판).

39) 단장 555 (47).

40) 단장 667 (25).

41) 단장 805 (106).

#### IV. 교육의 한계와 그 극복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육의 일차적 목적은 교양인, 즉 도덕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인간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파스칼은 이런 노력이 사실상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교육적으로 볼 때 도덕적 가르침이 부분적으로 인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런 교육이 궁극적으로 인간성을 갱신하거나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파스칼은 그에게 교양을 가르쳐준 미통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

“자아는 가증스러운 것이요. 미통. 당신은 자아를 가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요. 그러므로 당신은 여전히 가증스럽소 [...] 한마디로 자아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소. 자아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점에서 그 자체가 의롭지 않고, 타인을 예속시키려는 점에서 그들에게 불쾌하오. 왜냐하면 각각 자아는 모든 타인의 적이고 그들에 대해 폭군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요. 당신은 자아에서 불쾌를 제거하지만 불의를 제거하지는 않소.”<sup>42)</sup>

파스칼에 따르면 스스로 교양인임을 자처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이기적 욕망의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도덕적 가치나 참된 인간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인간의 실존적 상황은 매우 회의적이다. 이것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la nature corrompue*)에서 비롯된다. 즉 “인간은 은총 없이는 지워질 수 없는 자연적 오류로 가득 찬 존재일 뿐이다.”<sup>43)</sup> 또 “우리는 진리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불확실만을 발견할 뿐이다.”<sup>44)</sup> 이처럼 타락의 결과는 진리를 대신

42) 단장 597 (455). (이 환 옮김, 단장 141).

43) 단장 45 (83).

44) 단장 401 (473).

하여 그 자리에 오류와 불확실만을 남겨 놓는다. 여기서 인성 교육의 한계는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파스칼의 변증론에서 교육적 전제는 인간의 타락상이다. 죄의 유전(*la transmission du péché*) 또는 원죄는 모든 인간에게 미치는 타고난 보편적 죄성(罪性)이다. 루소는 파스칼을 언급하면서도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주의적 교육론을 표방한다. 그러나 파스칼은 원죄가 논리적 이해를 넘어서지만 인간의 보편적 조건이라고 본다. “인간은 이 신비 없이는 이 신비가 인간에게 불가해한 것 이상으로 불가해한 것이 된다.”<sup>45)</sup> 따라서 이 보편적 원죄를 전제하지 않는 교육은 불완전한 수밖에 없다. 설득 방법론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파스칼에 따르면 납득시키는 기술이나 마음에 드는 기술이 어느 정도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회심하게 못 한다.

그러면 교육적 관점에서 인간적 교육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인간학에서 신학으로의 전환, 달리 말하면 인간적 교육에서 초자연적 계시를 전제하는 기독교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팡세』의 라퐁마판(*Ed. Lafuma*) 분류문서(*Papiers classés*) 15장 제목을 ‘전환’(transition)으로 붙인 것도, 『팡세』의 큰 주제를 ‘신이 없는 인간의 비참’과 ‘신과 함께하는 인간의 행복’으로 설정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sup>46)</sup> 파스칼의 세 질서의 개념은 이를 뒷받침한다. 즉 육체적 질서, 정신적 질서, 사랑의 질서가 그것이다. 여기서 교육은 사랑의 질서에서 완성된다. 다시 말해 이 사랑의 질서에서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회심, 즉 초자연적 진리와 참 행복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 파스칼은 질서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다.

“마음은 그 자신의 질서가 있다. 이성도 그 자신의 질서가 있는데

---

45) 단장 131 (434).

46) 단장 6 (60).

이것은 원리와 증명에 의한 것이다. 마음은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다.”<sup>47)</sup>

“육체의 질서에서 정신에 이르는 무한한 거리는 정신에서 사랑에 이르는 무한히 더 무한한 거리를 표시한다. 사랑은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sup>48)</sup>

파스칼에 따르면 세 질서 사이에는 무한 곧 불연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적 진리는 정신의 단계에서 마음의 단계로 ‘자연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 이것은 원리와 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원리와 증명은 자연의 범위에서만 가능하지만 초자연적 진리는 “무한히 자연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sup>49)</sup> 초자연적 계시에 대한 이해는 마음 또는 사랑의 질서에서만 가능하다. 「설득의 기술에 관하여」에서 파스칼은, 신적 진리가 마음에서 정신으로 들어오는 이유를 “의지가 선택하는 사물들의 심판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그 추론의 오만한 힘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이고, 또 더러운 집착으로 온통 부패한 이 병든 의지를 치유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원죄는 정신과 의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랑을 통해서만이 진리에 들어갈 수 있다.”<sup>50)</sup> 이 초자연적 사랑은 회심 곧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러므로 육체나 정신의 질서에 머물러 더 높은 차원의 질서에 이르지 못하는 교육은 온전한 교육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파스칼의 변증론은 초자연적 계시와 신앙을 전제한 기독교 교육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그럼에도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 정신의 질서가 무용한 것은 아니다.

---

47) 단장 298 (283).

48) 단장 308 (793).

49) 단장 308 (793).

50) *De l'Art de Persuader*, 355a쪽. “지혜의 위대함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면 소용없는 것으로서, 육체적 사람에게도 정신적인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각기 종류가 다른 세 질서이다.” (단장 308 [793]).

그 자체에 고유한 기능이 있다. 즉 초자연적 진리나 계시를 이해하는 것도 정신이다. 이런 정신의 기능 때문에 변증론에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논리적 작업이 가능하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위대와 비참은 너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참 종교는 인간 안에 있는 위대성의 대원리와 비참의 대원리가 존재함을 필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 또한 참 종교는 반드시 이러한 놀라운 상반된 것들의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만 한다. [...] 이 종교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아니면 우리 자신의 행복으로 향하게 하는 대립의 원인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sup>51)</sup>

파스칼이 여기서 “필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 “설명해 주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강조한 것은 회심이 계시와 은총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가르치고 설명해주는 변증론적 노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의 변증론이 회심을 위해서 인간 이성에 직접 호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정신 또는 지성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적 담론은 파스칼의 변증론에서 필수적이다. 요컨대 파스칼은, 이 종교가 이성에 반(反)하지 않으며, 존중하고 사랑할 만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참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sup>52)</sup> 주장함으로써 ‘교육적 변증론’의 의의를 분명히 하였다.

## V. 나오는 말

이 글은 파스칼의 변증론을 교육적 관점으로 해석한 시도다. 그의 변증론은 종교적 진리의 인식론적 정당화보다는 회심에 목적을 둔다. 그래

---

51) 단장 149 (430), 김형길 옮김, Sellier판 단장 182.

52) 단장 12 (187).

서 그의 변증론적 작업은 매우 실천적이다.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파스칼은 일차적 교육목적과 궁극적 교육 목적을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듭 말하면 파스칼의 교육론은 변증론적 전략을 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논한 교양의 개념이나 설득방법론은 초자연적 진리를 제시하기 위한 예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파스칼이 전문적 지식의 습득보다는 교양교육을 강조한 것도 당시 교양을 추구하는 세속적 상류 계급과 공유할 수 있는 영역, 즉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인간 문제의 해답을 초자연적 진리에서 찾도록 유도하는 변증론적 전략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파스칼이 교양을 성공 지향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도덕적 개념으로 해석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드러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파스칼의 변증론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도록 설득하는 작업이므로 설득의 기술은 중요한 교육적 방법이 될 수 있다. 납득시키는 기술이 논리적 이성애 호소하는 것이라면 마음에 드는 기술은 마음 또는 의지에 호소하는 방법이다. 이 두 기술이 상호 작용할 때 교육적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런 노력은 파스칼의 변증론이 매우 실천적이고 교육적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교육적 시도는 한계가 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인성교육을 통해서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교육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시에 근거한 기독교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변증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회심은 사랑의 질서에서, 즉 초자연적 사랑과 은총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파스칼의 변증론은 인간 이해를 그 출발점으로 삼아 육체와 정신의 질서에 속한 사람들을 설득하는 교육적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한다. 이 점에서 파스칼의 변증론은 한마디로 ‘교육적 변증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서양근대철학회, 『서양근대미학』, 서울: 창비, 2012.
- 안혜련, 「파스칼의 수사학」, 『수사학』 제4집, 2006, 135-157쪽.
- \_\_\_\_\_, 「파스칼의 『시골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의 대화술」, 『프랑스고전문학연구』 9권, 한국프랑스고전문학회, 2006 11, 61-78쪽.
- Bluche, François, *Dictionnaire du grand siècle*, article “Honnête homme”, Paris: Fayard, 1990, 728-729쪽.
- Chipaz, François, Pascal, *La Condition de l'homme*, Paris: Michalon, 2000.
- Descartes, René, *OEuvres complètes*, Ed. Ch. Adam et Paul Tannery, Paris: Vrin, 1982-1989.
- Gouhier, Henri, *Conversion et Apologétique*, Paris: Vrin, 1986.
- Horowitz, Louise K., *Love and Language: A Study of the Classical French Moralists Writers*,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77.
- Kim, hyung-Kil, *De l'Art de Persuader dans les Pensées de Pascal*, Paris: Nizet, 1992.
- Le Guem, Michel, *Les Pensées de Pascal*, Paris: Larousse, 1983.
- Magendie, Maurice, *La politesse mondaine et les théories de l'honnêteté en France au XVIIe siècle de 1600 à 1660*, Paris: Alcan, 1925.
- Mesnard, Jean, *Les Pensées de Pascal*, Paris: Sedes, 1976.
- Montaigne, Michel de, *Essais*, Paris: Gallimard, 1950.
- Morot-sir, Edouard, *La Métaphysique de Pascal*, Paris: PUF, 1973.
- Pascal, Blaise, *OEuvres complètes*, Préface d'Henri Gouhier, présentation et notes de Louis Lafuma, “l'intégrale”, Paris: édition du Seuil, 1963.
- \_\_\_\_\_, *Pensées sur la religion et sur quelques autres sujets*, avant-propos et notes de L. Lafuma, 3e édition, Paris: Delmas, 1960.
- \_\_\_\_\_, *Pensées*, ed. de Ch.-M des Granges, Paris: Garnier, 1980.
- \_\_\_\_\_, *OEuvres complètes*, édition présentée établie et annotée par Michel

- Le Guern, Paris: Gallimard, 1998.
- \_\_\_\_\_, 『광세』 (이환 옮김), 서울: 민음사, 2003.
- \_\_\_\_\_, 『광세』 (김형길 옮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_\_\_\_\_, 『파스칼의 편지』 (이환 옮김), 서울: 지훈출판사, 2005.
- Sainte-Beuve, “Le chevalier de Méré ou de l'honnête homme au XVIIe siècle”, in *Revue des Deux Mondes* T. 21, 1848.
- Van Den Abbeele, Georges, “Moralsits”, edited by Denis Hollier, *A New History of French Literature*,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 Wine, Kathleen, *Forgotten Virgo: Humanism and Absolutism in Honoré D'Urfés «l'Astrée»*, Genève: Droz, 2000.
- Van Wymeersch, Brigitte, “L'esthétique musicale de Descartes et le cartésianisme”, in *Revue Philosophique de Louvain*, Année 1996, Vol. 94, Numéro 2.
- Kim, Taek-Mo, “L'honnête homme au XVIII siècle français et sa mise en perspective littéraire—autour de Méré, Scudéry et Mme de Lafayette”, 『불어불문학연구』 제45집, 309-332쪽.

## The Educational Implication in Pascal's Apologetics

Jang, Sung Min (Chongshin Univ.)

Pascal's educational thought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main points. First, the first notion of education's purpose is in forming a 'gentleman' (*honnête homme*). This kind of perspective may also be the important objective of the modern education. Secondly, educational methodology is a technique of persuasion. In Pascal's discussion on the art of persuasion, he distinguishes the method of convincing with the method of pleasing. According to Pascal, the former method is a logical persuasion while the latter method is a persuasion of the heart. In fact, the latter method is a more effective method than the former method. Thirdly, the Pascal's core point of his philosophy of education is in the Christian education. There are limitations in forming a gentleman and in using the persuasion methods because these kinds of attempts cannot alter the depraved human nature. The education that can transform the hearts of people can only be accomplished through faith on the supernatural revelation. Therefore, according to Pascal, the true education must be based on the Christian education.

Key words: Pascal, Education, Apologetics, Persuasion, Conversion

장성민 E-mail: smjang@chongshin.ac.kr

|        |               |
|--------|---------------|
| 투 고 일  | 2016년 04월 20일 |
| 심 사 일  | 2016년 04월 28일 |
| 게 제 확정 | 2016년 05월 31일 |